



さいたま暮らしの情報誌
埼玉県生活信息期刊
사이타마 생활 정보지

No. 43 (2014.9)

家族を亡くしたときの手続き・お葬式

家人去世时要办的手续及葬礼

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수속 · 장례식



悲しみの中でも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何かしら。

公的な手続きはどうするのかしら？

尽管内心万分悲痛，但有哪些事情是必须要处理的呢？公共手续应该如何办理呢？



슬프고 가슴아파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뭐지?

공적인 수속은 어떻게 하지?

【発行元】 公益社団法人さいたま観光国際協会 (STIB) 国際交流センター

場所：さいたま市浦和区東高砂町11-1 コムナーレ9階

【발행원】 공익사단법인 사이타마 관광국제협회 (STIB) 국제교류센터

장소：사이타마시 우라와구 히가시타카사고초 11-1 코무나레 9층

【发行方】 公益社団法人埼玉観光国际协会 (STIB) 国际交流中心

地址：埼玉市浦东区东高砂町 11-1 科姆纳莱 9楼

TEL : 048-813-8500
FAX : 048-887-1505
E-mail : iec@stib.jp
URL :
<http://www.stib.jp/kokusai>

병, 사고, 사건 등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입니다. 특히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의 충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수속과 장례식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일본에서는 옛날에는 슬퍼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친척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는 장의는 장의사에게 모든 준비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아래에 써 있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. 지식으로도 미리 알아 놓으면 좋겠습니다.

공적인 수속과 장례식



사망했을 때 (병원·자택·그 외)

- 장의사를 정합니다.
- 병의 경우는 주치의로부터「사망진단서」를, 사고·사건의 경우는 경찰로부터「사체검안서」를 받습니다.
 - * 「사망진단서」「사체검안서」는 나중에 필요하므로 몇 장 복사해 둡니다
 - 「사망진단서」「사체검안서」용지의 반쪽은 「사망신고」용지로 되어 있습니다.
- 「사망신고서」에 기입하여 구청에 제출하고「화장허가증」을 받습니다.
 - * 구청에의 수속은 장의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.
- 가족, 친척, 친구, 지인에게 연락합니다.



사망신고 (항상 접수하고 있음)

- 사망한 것을 안 날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한다.
- 제출하는 사람은 가족, 친척, 함께 살고 있던 사람.
- 인감도장이 필요.



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「상제비」로 5 만엔이 지불됩니다.

자세한 것은 각 구청 보험연금과로 문의해 주십시오.

장례식 준비

- 장례식의 책임자(상주)를 정한다
- 장의사와 통야, 장례의 절차·장례 일시 ·회장·형식 등을 의논해서 정합니다.
- *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히 자세하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친척, 지인, 관계처에 장례식 일정을 연락합니다.

통야

- 통야 준비
- 통야를 지냅니다.



통야란?

장례식 전날에 친척과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하룻밤을 보내는 일 입니다.

장례식·고별식

- 장의·고별식 준비
- 장의·고별식을 진행합니다.

출관·화장

- 화장장에「화장허가증」을 제출하고 「이장허가증」을 받습니다.
- 유골을 받습니다.